



**삼상18:6-16 사울과 다윗사이**

사울과 다윗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몇가지 원인을 찾아봅시다.

**1. 열등감입니다.(7,8)**

7,8절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돌아올때 승리의 노래를 부른 여인들의 노래 내용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만합니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것이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모욕감에 싸달리다가 다윗에 의해 모든 전세가 뒤집어 집니다. 그의 명성은 자자해 질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다윗을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5) 다윗은 사울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잘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사울의 태도입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러한 열등감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힘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좋은 열등감도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해서 차도 사고 집도사고, 잘 살아봐야 겠다. 아이들도 잘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내가 공부못했으니 자식만은 나보다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른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대므로..."

사울에게 큰 스트레스가 임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병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다윗만 생각하면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하든 처리해야 됩니다. 열등감은 병입니다. 열등감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인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벧후1:10)

**2. 사랑의 부재이다.(1-4)**

1절부터 보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를 기술합니다. 1절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3절"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하여 더붙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실 다윗을 시기하고 열등감을 가져야 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자기하고 나이라도 비슷하고, 자신은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열등한 촌에서 자란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하여 열등감을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기심으로 타올랐습니다. 사랑은 열등감을 이깁니다. 자식이 잘되는 데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갖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전13:1 에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외국어를 유창히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최고의경지에 오른 지식인들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슨 소용인 있는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데...질투는 사랑의 부재에서 시작합니다.

**3. 믿음이 부재에서 시작합니다.(8)**

다윗의 큰 승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단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함을 그가 믿는다면 다윗을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갖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믿지도 못했습니다.(8) 이러한 불신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보면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불신을 갖게 된것입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백성들에 대한 불신은 결국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

▲ 북미주 개혁장로교회(CRC)  
**사랑의동산교회**  
Dong San of Love C.R.C.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